

지역개발학 분야의 도전과 전망

이 성 근*

—〈目 次〉—

- | | |
|-----------------|----------------|
| I. 서론: 논의의 방향 | IV. 사회적 이슈와 전망 |
| II. 학문적 이슈와 전망 | V. 결론 |
| III. 교육적 이슈와 전망 | |

I. 서론: 논의의 방향

21세기를 목전에 둔 오늘, 환경대학원 개원 25주년이자 도시 및 지역개발학과 설립 30주년의 뜻깊은 해를 맞아 “21세기 도시·환경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라는 기념세미나에서, 지역분과 발제학회로서 이 분야의 그간의 성과를 반추해 보고 학문의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게 됨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생각된다.

우리는 ‘지역개발학 분야의 도전과 전망’이라는 논제하에, 학문적·교육적·사회적 이슈와 전망이라는 세 가지 큰 틀 속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학문적 이슈와 전망으로서, 지역개발학의 학문적 전통과 그 성격은 무엇인가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학문적 공동체로서의 한국지역개발학회 창립과 지역개발학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통해 지역개발학의 학문적 과제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교육적 이슈와 전망으로서, 지역개발학의 학문적 제도화와 지역개발학과와 설치운영을 국내외 지역개발 관련학과를 통하여 분석해 보고, 지역개발전문가 양성과 교육과정을 지역개발교육의 방향 및 교과과정 구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대학 교육개혁과 지역개발학의 대응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사회적 이슈와 전망으로서, 정보화·첨단화·친환경화 등 사회환경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지역개발이론의 개발이라는 학문적 과제, 세계화·개방화 및 지방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실천적 과제, 관련법 및 계획체계의 변화, 지역개발전문인력 활용기반 조성을 위한 계획적 과제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 영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

Ⅱ. 학문적 이슈와 전망

1. 지역개발학의 학문적 전통

지역개발학의 첫번째 학문적 이슈는 ‘지역개발의 학문적 뿌리는 어디로부터 나왔는가?’이다.

지역개발학의 형성은 외국의 경우 크게 도시계획이 확대된 개념으로서의 지역개발학, 지리학과 경제학의 공간정책적 접근방법의 발전된 형태로서의 지역개발학, 그리고 사회주의체제 혹은 계획경제체제하에서 국가하위계획으로서의 지역개발학으로 구분된다(최상철, 1998).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농촌개발전략으로서의 새마을운동이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개발의 확대 변형된 개념으로서 지역개발의 학문적 성립과 발전에 주도적으로 작용하였다. 여기서는 지역개발학의 학문적 전통으로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지역과학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학문적 전통 1 : 도시 및 지역계획학

외국의 경우 지역개발학의 성립배경은 먼저 사회적 수요에 대한 실천적 필요에 의해서 자극되고, 다음으로 관련 학문분야에서 관심을 가짐으로써 독자적인 학문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학부에서 지역개발분야를 최초로 강의한 것은 1920년 일리노이 대학교(Univ.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Dept. of Urban & Regional Planning)가 처음으로 개설되면서 부터였고, 대학원 과정에서는 영국의 리버풀대학(Univ. of Liverpool)에서 1910년 도시설계(Civil Design)에 관한 강의를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1923년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에 계획관련 석사과정이 설치된 것이 그 효시였다. 그 설립목적은 계획분야에서의 전문교육의 필요성과 도시 및 지역계획분야의 전문가 양성이었다(고병호 외, 1997).

한편 도시 및 지역계획학의 형성과 발전과정은 Harvey Perloff의 논문 “Planning for Turbulence”에서 잘 요약되어 있다. Harvey Perloff에 의하면 계획교육은 사회여건의 변동과 정부의 계획관련 프로그램, 그리고 계획실무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형성되고 발전된다고 보고 있다(이성근, 1995).

2) 학문적 전통 2: 지역과학

지역과학은 1940년대 하버드대학교에서 입지이론(location theory)의 강의 및 연구로 등장하였고, 1954년에 지역학회(Regional Science Association)의 설립으로 발전되었다. 도시 및 지역문제와 관련된 학문분야로는 도시계획, 토목공학, 지리학, 경제학 등이 있다. 60개 이상의 나라에서 지역학의 관련 분야가 생겨났으나 최근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학회지로는 J. Regional Science, Int. Regional Science Review, Papers RSA, Regional Science, Urban Eco., Environ. & Planning A 등이 있다.

지역학의 교육프로그램(Regional Science Programs)으로는 Univ. of Pennsylvania

B. A., M. S., Ph. D., Cornell Univ. M. S., Ph. D. 등이 있고, Separation in Regional Science로는 Univ. of Ill., Ohio State, USC, Indiana, Arizona, Liverpool(UK) 등이 있으나, 최근 대학사정에 따라 관련학과가 통폐합되었거나 없어진 경우도 있다.

지역학의 분야(field of Regional Science)로는 입지이론(location theory), 지역성장·개발이론(regional growth & development theory), 도시 및 지역분석방법론(methods of urban & regional analysis), 교통(transportation), 정책(policy - energy, environment, evalu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growth centres, conflict management/multi-objective programming, impact analysis 등) 등이다(이성근, 1995).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역개발학계에서는 지역개발의 학문적 뿌리가 상이한 근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된 학문영역으로서의 정체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식된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는 정체성 확보보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개발학의 성격을 재규정하는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역개발학 분야의 경우 계획적 전통이 강하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본다(이성근, 1995).

2. 지역개발학의 학문적 성격

지역개발학의 두번째 학문적 이슈는 '지역개발의 학문적 성격은 무엇인가?' 이다.

1) 학문적 성격

— 종합과학 내지 학제적 학문으로서의 지역개발학

지역개발학은 종합과학 또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인 학문으로서 도시계획학, 경제학, 지리학, 사회학, 행정학, 정치학, 토목학, 건축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 영역을 포함하는 종합학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학문영역의 개념이나 방법론을 선택적으로 취합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과학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분석적 틀을 지닌 학문이다(최상철, 1998).

종합적이고 학제적이란 의미는 지역개발학이 인접학문과의 상호교류를 통해서 연구발전되어 왔으며, 필요한 관련이론과 방법론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 냄으로써 학문적 정체성을 새로이 확립하여 왔음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개발학은 대학의 학부제 도입에 따른 학과간 상호교류의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로 생각된다.

— 규범적이고 실천적 학문으로서의 지역개발학

지역개발학 분야가 다른 학문과 다른 점은 바로 규범적이고 실천적인 학문(최상철, 1998)이라는 점이다. 지역문제에 대한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려야 하는 실증적이고 임상적인 학문으로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문제의 해결과제와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동체계를 찾아내는 규범적이며 정책적 학문이다.

— 지역(공간)문제를 바탕으로 한 지역개발학

지역개발학은 지역(공간)의 문제를 항상 바탕으로 둔 학문분야로, 총량적인 것이 아니라 공간적 배분과 형평성에 학문적 패러다임을 두고 있다(최상철, 1998). 즉 지역개발학은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간개발에 초점을 두어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향함과 동시에 성장을 통한 재분배, 기본수요의 충족 등 계층간 형평성도 함께 추구하는 학문이다. 최근에는 환경문제의 대두에 따라 개발과 보존의 조화라는 친환경성 내지 지속성의 개념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지역개발학은 종합성, 실천성, 공간성을 학문적 구성요소로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공간성, 실천성 측면에서는 학문적 아이덴티티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나 종합성 측면에서는 종합성의 딜레마와 함께 학문적 아이덴티티 확보측면에서 여전히 도전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학문적 지향성과 중심과제

지역개발학의 세번째 학문적 이슈는 '지역개발의 학문적 지향성과 중심과제는 무엇이고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이다.

지역개발학의 학문적 지향성은 50~60년대의 성장거점이론을 중심으로 한 효율성 지향, 70~80년대의 기본수요이론 등을 중심으로 한 형평성 지향, 그리고 90년대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론으로 대표되는 생태성 지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한편 '지역개발이론 가운데 공간조직에 관한 이론은 무엇이 존재하는가, 왜 그런 모양으로 존재하는가, 어떤 모양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유도해야 하는가'에 따라 기술적 이론(descriptive theory), 설명적 이론(explanatory theory), 규범이론(normative theory), 통제이론(control theory)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되기도 한다(Peter Hall, 1979). 이중 앞의 두 이론은 지역과학분야, 그리고 뒤의 두 이론은 도시 및 지역계획분야의 접근방법으로 중요시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개발의 실천성 측면에서는 뒤의 세 종류 이론이 특히 유의미하다(김형국, 1997).

장차 효율성, 형평성, 생태성의 동시 통합적 지향은 가능할 것인가가 지역개발학의 학문적 중심 과제라고 하겠다. 또한 앞으로의 지역개발 연구의 중심과제는 분과학보다는 분야학 중심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조명래, 1996).

3. 학문적 공동체로서의 한국지역개발학회

지역개발학의 네번째 학문적 이슈는 지역개발의 학문적 공동체 형성과 그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1) 학문적 공동체 기반으로서의 교수협의회

1970년대 중반부터 대학에 지역개발학과가 설치된 이래, 지금은 전국의 17개 대학에서 지역개발 관련분야의 인재들이 속속 배출되고 있으며, 각기 지역개발 관련연구와 실제에 매진해

오고 있다.

돌이켜보면, 1982년 7월 대전 유성에서 제1차 지역개발학과 교수협의회가 개최됨으로써 비로소 지역개발학문의 발전과 학사행정개선을 위한 공동모임이 시작되었고, 동년 11월 단국대학교에서 개최된 전국 지역개발학과의회에서 학술교류와 그 사회적 기여와 진작을 위한 공동노력을 목적으로, 강릉대를 비롯한 10개 대학의 지역(사회)개발학과를 일반회원으로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를 특별회원으로 하여, '지역개발학과교수협의회'를 발족하였다.

동 협의회는 지역개발학과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사업, 학술정보교환, 지역개발학과 졸업생의 취업기회의 확장을 위한 공동 노력, 기타 학과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행사 등을 중심 활동으로 규정하고, 학사행정에 대한 정부 건의, 졸업생들의 사회수요 증대를 위한 노력, 지역개발학의 정립을 위한 교과서 편찬, 각종 워크샵의 개최, 연구학술지 발간 등의 사업을 전개해 왔었다.

2) 한국지역개발학회의 창립

1987년 7월 청주대학교의 워크샵과 협의회를 기점으로 다시 학회 발족의 분위기가 고조, 동년 11월 학회 발족을 위한 발기인회가 대전 유성에서 열렸고, 12월 대전 유성에서 학회발족 준비위원회가 개최되어 회칙(안)과 발족 일정을 확정하였다.

그리하여 1988년 2월 전국 지역개발학과 교수협의회를 모태로 하여, 지역개발학의 학문적·실용적 연구발전을 통한 한국 지역발전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가 전남대학교에서 창립되었다. 학회창립에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것이다. 그 사이 전주에서의 한국지역개발·자치학회, 세계지역학회 한국지회(한국지역학회)가 설립되었고, 70년대 후반에 창립된 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등도 각각 활동을 전개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89년 12월 주무관청인 내무부(현 행정자치부)로부터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학회'로 법인설립 허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학회활동으로는, 지역산업경제·지방금융·지방재정에 관한 조사연구, 도시 및 지역공간개발·지역산업의 합리적 입지·부존자원의 효율적 개발에 관한 연구, 도시 및 지역개발정책에 관련된 행정·경제·법률·환경 등의 조사연구, 학술지·연구발전자료·도서의 출판 및 학술발표회의 개최, 지역개발학의 연구발전에 관한 공로자 표창 및 장학사업 등 지역개발 관련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3) 지역개발학의 정체성 확보 노력

한국지역개발학회지는 회원들의 연구활동의 성과물인 논문, 보고, 논평, 서평, 연구자료 등을 수록하고 있다. 창간호(1989년 6월)에서 제3권까지는 연 1회 발간, 제4권에서 제7권까지는 연 2회, 제8권(1996)부터는 연 3회로 증간되었으며, 1998년 현재 총14권이 발간되었다. 장차 국문학회지를 연 4회로 증간하고, 영문학회지 연 1회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학회에는 전국 지역개발 관련학과의 대부분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지역개발학회지

편집지도위원(총 164명)의 전공별 구성을 보면, 지역경제(21명)를 포함한 경제학 전공자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55명, 33.5%). 다음으로는 도시 및 지역계획(33명), 지역(사회)개발(2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토지 및 주택정책, 정책학, 지리학, 환경경제, 정보체계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음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학회지 게재논문을 보면, 지금까지의 총 192편 가운데 지역경제(27편), 개발전략(21편), 도시 및 지역개발(17편), 토지 및 주택정책(15편), 도시 및 지역계획(14편)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학회지 발간 초창기(89-91년, 31편)와 최근(97-98년, 43편)의 논문게재편수를 비교해 보면, 초창기에는 토지 및 주택정책(5), 도시 및 지역계획(4), 지역경제(4)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역경제(8), 농촌개발(4), 낙후지역개발(4) 등으로 지역경제분야가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농촌 및 낙후지역개발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학회지 창간 2주년체인 1990년 단국대학교 주관 하계 학술발표대회("21세기를 지향하는 지역개발의 길")를 시작으로, 전국 지역개발학과를 중심으로 순회하면서 학술발표대회를 연 1회~3회에 거쳐 꾸준히 개최해 오고 있다(지금까지 총 13회 개최). 주제들로서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지역개발학 패러다임의 모색, 도시 및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개발전략의 탐구, 개발촉진지구 개발, 엑스포와 지역발전 등과 같은 정책과제의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이르는 학술세미나를 통하여 지역개발학의 이론과 실제의 양면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크게 지역개발 여건변화에 따른 지역개발의 과제와 지역개발학의 대응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한편, 교재편찬사업으로 『지역개발학원론(1996)』의 탄생을 들 수 있다. 1989년 교재편찬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개발학과 교수협의회에서 발간한 『地域開發論(1987)』을 완전 개정하여 지역개발학의 교과과정의 핵심이 되는 원론교재를 마련한 것이다. 이 교재는 지역개발의 기초개념·지역개발의 이론·지역개발의 실체·지역개발의 절차 등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부생들을 위한 지역개발학의 입문서적 성격을 띠고 있다.

4) 성과와 전망

지역개발학 분야에 종사하는 학자들의 학문적 공동체로서의 한국지역개발학회의 그간의 성과로 볼 때, 역사적 일천성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하다고 본다. 이는 대학의 지역개발학과라는 동질적 요소가 크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고 이가 앞으로의 지속적 발전에도 큰 동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문적 공동체 기반으로서의 한국지역개발학회의 관련 타학회와의 수평적 교류의 활성화는 학제적·종합적 성격의 지역개발학의 정체성 확보와 차별화를 위해 필요 불가결하며, 이를 위한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Ⅲ. 교육적 이슈와 전망

1. 학문적 제도화와 지역개발학과의 설치운영

학문적 제도화로서의 지역개발분야 교육의 첫번째 이슈는 ‘지역개발분야 교육체제는 어떠하고 어떠해야 하는가?’ 이다.

1) 외국의 지역개발 관련학과의 설치운영

외국의 대학에서는 지역개발 관련분야가 계획관련분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 분야의 깊이 있는 전문교육을 위해서 대체로 대학원과정을 중심으로 학과가 개설되어있다. 따라서 지역개발 관련 대학원에서는 (대학)과정에 학과단위(undergraduate department)를 설치하거나 또는 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취득을 위해 학부과정에 전공 및 부전공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영국의 계획관련 대학원의 경우 61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은 21개이고, 이들 대학원 중에서 14개 학과가 도시 및 지역개발학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일부 대학에서는 단독학과명칭(지역개발학과 3곳, 지역계획학과 3곳, 지역과학과 1곳)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도시, 지역, 환경을 다루는 계획관련학과가 총 133개(대학원 포함)인데, 이중 45개 대학에서 지역관련학과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정환용, 1995).

학부에 있어서도 이 분야의 과명칭은 대학원의 추세와 다를 바 없다. 도시 및 지역계획 분야의 학문적 틀 속에서 각 대학과 학과의 특성에 따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전공에서 다소 차이가 있고 학문적 지향성은 계획적 지식과 전문교육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에서의 지역개발분야의 교육동향은 첫째, 계획교육이 대체로 대학원 중심의 전문교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둘째, 학부에서는 전공 및 부전공 형태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설해 놓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특히 학과의 소속대학을 살펴보면, 영국과 미국의 일부 대학에서는 전공특화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School체제에 속해 있으나 대개의 미국 대학에서는 College안의 개별학과로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고병호 외, 1997).

2) 우리나라의 지역개발학과의 설치운영

우리나라에서 지역개발학과가 설치되게 된 것은 이론적 학문성보다는 사회적 수요에 대한 실천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개발학과의 설치와 운영은 외국의 도시 및 지역계획 관련분야의 설치동기와 그후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크게 다를 바 없다.

1960년대 이전까지는 지역개발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다. 그 당시의 지역개발은 주로 토목, 건축분야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0년대 초부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고, 1970년대부터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실시되면서 이 분야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산업화·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도시 및 지역문제가 현안과제로 떠오르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이성근, 1995). 전자를 공공영역에서의 계획지식의 필요성 대두라고 한다면, 후자는 사회영역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지식의 수요확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당시의 한국적 사고에서 농촌개발 및 새마을운동 요원(영남대)의 필요성 등이 이 학과의 필요성의 또 다른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1968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미국과 영국의 계획교육체제와 유사한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가 설치되었고, 지역개발학과가 본격적으로 각 대학에 설치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 무렵인데, 1975년 단국대학교에, 1976년에는 영남대학교, 대전대학교, 전남대학교, 중앙대학교, 성결대학교에 각각 지역개발학과 또는 지역사회개발학과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이어 '77~'79년 사이에 한남대학교, 청주대학교, 강릉대학교, 목포대학교에 지역개발학과가 설치됨으로써 이 분야의 학과태동과 학문발전이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1998년 현재 전국의 지역개발학과는 17개 학과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695명(야간 120명 포함)의 신입생이 입학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고병호 외, 1997). 한편 지역개발 관련학과는 인문사회계열을 중심으로 법정계열, 경상계열, 이공계열 등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등 소속된 단과대학의 명칭이 다양하다는 학사운영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개발학의 학문적 성격과 교수들 전공영역의 다양성에 기인함이 크다.

우리나라 지역개발학의 태동은 사회적 수요측면이 매우 강한 바, 각 대학에서의 교과과정이나 교육목적이 조금씩 상이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지역이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지역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지역개발학의 학문적 특성의 차원에서 볼 때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 볼 수 있다.

2. 지역개발전문가 양성과 교육과정

지역개발분야 교육에 있어서 두번째 이슈는 '지역개발교육의 방향설정과 그 구현을 위한 적절한 교과과정 구성은 어떠해야 하는가?'이다.

1) 지역개발교육의 방향

지역개발 관련분야의 교육은 학문성과 실천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대체로 계획교육의 방향설정과 관련하여 두 개의 접근모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전문가 모형(specialist model)과 일반주의 모형(generalist model)이 그것이다. 전문가모형은 기본적으로 다학제적 활동으로 다른 직업과 학문이 계획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면서 일정한 계획교육이 필요하고 이는 대학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영국에서 1930년대에 설립된 대학원 과정에서 나타났다. 일반주의 모형은 계획가가 증가하고 계획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계획 자체의 정체성 확립에 관심을 보이면서 학부과정에서의 기본교육이 필요로 하는 독자적인 하나의 학문영역이라

는 생각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여기서는 계획에 필수적인 지식과 기법에 초점을 두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지역개발 관련학과가 대부분 학부과정에서 설치운영되면서 독립된 학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지향하고 이를 대학원 과정에서 심화하고 있는 교과과정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주의 모형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대학에서 특정학부와의 연계없이 대학원 중심으로 전문교육을 강조하는 계획교육형태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전문가 모형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획교육에 대한 전통적인 두 개의 접근논리가 지역개발교육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개발학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규명해서 교육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학부과정에서 지역개발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전문가 양성인가 아니면 일반인 양성인가? 전문가 양성을 지향한다면 보다 실제적이고 실무적인 교육내용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일반인 양성이라면 보다 폭 넓은 인접학문에의 접근기회를 강조해야 할 것이다(고병호 외, 1997). 이는 앞으로 대학교육개혁에 따른 학부제 시행과 관련하여 지역개발분야의 교육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2) 교과과정의 구성과 특징

외국의 경우 교과목의 개설내용은 각 대학의 특성화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유사한 과목이 많은 편이다. 외국의 교과과정 구성의 특징은 기초교과목을 충실히 이수하면서 분석기법이나 실습 등을 통하여 실제적이고 전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과목이 짜여 있다. 과거 물리적계획의 교육과정에서 사회과학 측면을 강조하는 단계, 계량분석 위주의 도구에 중점을 두었던 교육과정을 거쳐 미래의 정책대안 마련에 주안점을 두는 쪽으로 개편되고 있다. 특히 도시 및 지역문제 중심에서 사회계획을 거쳐 자원개발 및 환경의 문제로 전문분야의 영역이 발전되고 있다(고병호 외, 1997).

우리나라의 경우 교과목의 구성을 볼 때 매우 다양한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개발학의 종합성, 학제성, 전문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교과목의 구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학과의 설립배경, 소속대학, 학과교수의 구성 및 전공여하에 따른 개별적 특성이 혼합되어 매우 다양한 교과목들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15개 대학에서 강의되고 있는 총 527개 교과목을 과목성격에 따라 학제간 교류과목, 전공기초과목, 분석도구과목, 전공분야과목의 4개 영역¹⁾으로 구분하여보면, 학제간 교류과목이 135개 과목(25.6%), 전공기초과목이 136개 과목(25.8%)에 이르며 분석도구과목은 95개 과목(18.0%), 전공분야과목이 161개 과목(30.6%)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병호 외, 1997).

1) 학제간 교류과목은 지역개발학 입문에 필요한 기초지식 습득을 위한 과목이고, 전공기초과목은 지역개발 전공분야에서 기초적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할 성격의 과목이며, 분석도구과목은 실증적인 분석과 계획기법에 필요한 교과목들이 해당된다. 그리고 전공분야과목은 전공기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적인 문제해결이나 정책관련 전문지식의 습득과 활용에 필요한 교과목을 칭한다.

특히 전공분야과목의 영역에 있어서는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데 소위 전형적인 커피숍체계(cafeteria system)로서 계획가가 알아야 할 모든 내용들을 다 열거해 놓은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지역개발 관련학과의 교과목의 편성은 대체로 영국과 미국에서의 교과 과정에 기초하고 있으나, 다른 점은 우리의 교과목 편성이 실용적·분석적·응용적 측면이 약하고 대체로 백화점식 교과과정 운영으로 심도깊은 지식이나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에는 미흡하다고 하는 점이다(고병호 외, 1997). 따라서 타 학문분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대학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과제이다.

3. 대학교육개혁과 지역개발학의 대응과제

지역개발분야 교육에 있어서 세번째 이슈는 '급변하는 대학교육환경 하에서 지역개발교육체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있다.

1) 학부제의 의의와 내용

최근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학제개편을 통한 구조조정의 열기가 한창 일어나고 있는 바, 그 핵심내용의 하나가 학부제의 시행이다. 학부제의 실시는 학제간 연구를 기초로 하여 종합적인 학문발전과 전문성을 지향하는 지역개발 관련분야에 시사하는 의미는 매우 크다.

지역개발 관련분야가 하나의 학과단위로서 운영되기에는 전공의 성격상 학점 및 교과목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부제의 실시는 인접학문과 유사전공으로의 접목을 수월하게 하고 복수 및 연계전공제 등 지역개발 관련분야의 전공영역을 심화하고 다양화시킴으로서 이 분야의 학문발전 및 실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고병호 외, 1997), 우려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2) 지역개발학과의 대응과제

첫째, 지역개발 관련분야의 중심영역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지역개발학에 있어서는 기존의 design, science, theoretical, public 중심의 교육방향에서 policy oriented, planning oriented, practical oriented, private oriented로 교육방향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복수 및 연계전공 등을 통하여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이 학부제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사 전공간의 전문화 및 분업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개발 관련분야의 학부제구상은 지역연구분야와 도시연구분야를 총괄하는 전공영역체제로 구성하거나 정책분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서 환경분야, 지역정보분야 등 새로운 변화와 요구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고병호 외, 1997).

넷째, 대학원에 석·박사 과정이 폭 넓게 설립되어 학문의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원의 설립, 특히 박사과정의 신설요건이 매우 강화되었는 바, interdepartment system의 도입도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참여식 교육방식이 확대되어야 한다. 참여교육은 토론식이나 세미나식으로 운영되는 통상적인 학습방법을 활용해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연구프로젝트, 리포트 작성, 연구논문 작성 등의 과제수행을 통해 피교육자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유도해내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멀지 않아서 사이버 교육이 보편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지역개발교육분야에 이런 교육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학회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조명래, 1996).

지금 대학은 학부제의 시행을 비롯한 전면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은 지역개발학의 교육적 목표정립과 그에 따른 교과과정의 구성이라는 틀에 입각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목표의 정립과 이에 따른 교과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실용적·분석적·응용적 측면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부와 대학원(일반 및 전문), 그리고 관련 연구소 등의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도 도움을 줄 것이다.

Ⅳ. 사회적 이슈와 전망

지역개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은 사회적 동향이다. 21세기에 도래할 커다란 사회환경변화는 정보화, 기술혁신, 환경문제, 그리고 문화 등이고, 이들 사회환경변화에 따라 지역개발학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개발학은 이들 사회환경변화를 적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체계화와 구축을 위한 노력이 앞으로 중요한 학문적 과제이다.

1. 사회환경변화와 학문적 과제

1) 정보화와 지역개발이론

정보화시대로 이행되어감에 따라 통신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이에 따른 첨단통신망의 구축은 산업입지의 자유도를 더욱 크게 하고 있으며, 고속교통망은 지역간 교류를 더욱 확대시켜 지역간의 생산분담과 연계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이러한 고도정보화의 진전은 정보의 지역간 격차 축소를 통하여 인구의 지방정책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고도정보시스템이 발달한 대도시권에 인구, 산업의 집중을 초래할 가능성도 동시에 갖고 있는 바, 국토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지방에서의 고도정보기반정비는 전국이 첨단화와 정보화에 대비하는 필수요건이 된다.

이처럼 향후 지역개발에 있어서는 지역정보시스템의 효과적인 구축이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하게 되는 바, 장차 지역개발학에 있어서 정보화는 중요한 분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뉴미디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 등 정보화사회에 적실

한 지역개발이론을 정립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2) 첨단화와 지역개발이론

21세기 선진형 사회는 첨단화 사회가 될 것이다. 사회학자이며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최근 세계적인 변화의 물결을 “이제는 노동이나 자본으로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만들지 못한다. 전문적인 지식만이 가능하다. 지식이 생산의 근원이고 경제활동의 근원이다”라고 표현하며 기술집약형, 지식형, 첨단산업으로의 구조개편을 전망하고 있다(Peter Drucker, 1993).

첨단화사회의 도래에 대한 기술혁신을 핵으로 하는 인식하에 이미 미국을 비롯한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1970~80년대부터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기초과학 부문의 투자확대뿐만 아니라, 기술하부구조의 확충 및 주변 산업기술관련 서비스를 강화해 왔다. 미국의 리서치파크(research park), 영국의 사이언스파크(science park), 독일의 이노베이션센터(innovation center), 일본의 기술집적도시(technopolis) 등 각국의 산업·경제적인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기술혁신개발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지역간 불균형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우리나라는 그 해결책을 첨단화에서 찾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주도하여 왔던 성장위주의 경제논리에서 탈피하여 대다수 지역민의 창의력이 개발·배양될 수 있는 문화적 환경 내지 사회적 풍토조성과 첨단화를 문화로서 중시하는 가치체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지역개발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인력, 연구개발, 대학, 벤처 캐피털, 스핀 오프(spin-off), 집적경제, 섹터적 기업가 정신, 서비스 네트워크, 그리고 이들을 바탕으로 한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 등 기술혁신을 지역개발학의 주요 연구과제로 한 복합적인 연구 노력들이 요구된다.

3) 환경문제와 지역개발이론

이제 환경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난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원칙 아래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실천강령인 ‘아젠다 21’이 채택되었고, 또한 각국과 각 자치단체가 이에 상응하는 ‘아젠다 21’을 작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역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환경오염과 이의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의 질적 향상과 보전을 통한 자연의 수혜가 미래 세대에까지 계승되도록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것이 실천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실천에의 일체감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개발 패러다임의 전개가 필요하다. 오늘날 그 대표적인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환경적으로 건전

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개념도 실천지향적 성격의 개념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또한 지역개발학의 중심 연구과제라고 하겠다.

2. 사회환경변화와 실천적 과제

급격한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지역개발학 분야의 또 다른 과제는 실천성 제고이다. 무엇보다도 지역개발학 분야는 세계화·개방화와 지방화의 전개에 따른 갖가지 실천적 해법을 요구받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지역개발분야가 효과적인 처방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가 사회적 이슈의 실천성 문제이다.

1) 세계화·개방화와 지역개발

정보·통신의 발달 및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국가간·지역간의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면서 사람과 물자, 돈, 정보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내왕하고 경제를 비롯한 문화·학술·교육면 등에서 다양한 교류가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세계화·개방화가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개방화는 바로 기술정책, 노동문제, 환경문제, 경쟁정책문제, 그리고 투자정책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모든 부문의 구조합리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문화적·교류적 측면에서는 전지구가 세계화·개방화됨에 따라 중앙정부적 차원에서부터 개인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인 교류가 한층 더 활발하게 전개 될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개방화는 사회·경제적 분야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지만, 특히 산업경제 부문에 있어서 그 영향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IMF시대의 경제구조조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각각의 지역개발 주체들이 세계화·개방화에 따른 지역산업구조 변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기술경쟁시대에 지역기업의 기술향상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그린라운드(Green Round) 추세에 기업과 주민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동원시킬 수 있는가라는 과제 등이 바로 세계화·개방화에 따라 대두되는 주요 논제이다. 그러므로 세계화·개방화에 따른 뉴 메가트랜드(new megatrends)에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대처가 지역개발학 분야의 중요한 실천과제가 되고 있다.

2) 지방화와 지역개발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시행에 따라 정책의 입안과 정책과정에 주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아울러 주민자치에 의한 지역단위의 발전구상이 활발히 논의되며 또한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화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지방의 자치권한을 인정하는 정치권한의 분권화로, 경제적으로는 자치재정·재원을 확보케하는 경제자립성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생활환경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지방의 자율·자립·독립성으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화는 지역주민의 정주를 바탕으로 지역성이 존중되고 지역간 개성,

전통성, 다양성 등이 중시되어 지역개발 등에서 자율적인 운영을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30여년 동안의 전통적인 중앙집권체제에서 새로운 지방분권체제로의 전환으로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와 함께 주민통제가 곤란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로 인한 권력의 분산은 각 계 각층에 영향을 미쳐 주민참여 욕구가 강력하게 분출하게 되고, 자치시대의 공공계획은 공권력 통제면에서 한계로 작용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는 자립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의지와 타 지역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취약한 지방재정구조로 인해 자원동원능력에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주민참여 및 공권력 행사의 제약과 자원동원능력의 취약이 지역개발학에 있어 주요논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개발주체들간의 갈등요인의 조정 또는 제도화 등의 문제가 지역개발의 중요한 실천과제가 되고 있다.

3. 사회환경변화와 계획적 과제

사회환경변화에 대응할 지역개발분야의 제도화는 어떠한가가 사회적 이슈의 계획적 과제이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화로서의 지역개발 관련법규의 정비가 필요하고, 이에 근거한 계획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들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과 공급을 위한 제도화가 필요한 것이다.

1) 관련법 및 계획체계의 변화

지역개발분야는 법체계면에서 도시계획(도시계획법)분야와는 달리 특정화된 법체계가 미흡하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 우리나라의 지역개발 관련법은 건축법(1962), 도시계획법(1962), 토지수용법(1962), 건축법(1962) 등과 같은 개별법 형태로 산재되어 있었는 바, 종합적 차원에서 지역개발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개 법률간에 있어 적용상 우선순위, 해석, 효력 등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차원에서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법(1963)과 이의 구체적 실천수단으로서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토이용관리법(1972)이 제정되었으나, 지역개발 관련법들간의 수직적 위계와 수평적 연계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국가(전국)계획, 지역(광역)계획, 지방계획 등 계획대상의 범위에 따라 계획체계 및 내용상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80년대의 하향적·중앙집권적 시각에서 벗어나 균형개발적 시각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각종 특별법, 예컨대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1980), 제주도개발특별법(1991),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1994),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1994), 그리고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995) 등이 개개 지역문제에 대한 협소한 시각에서 제정·집행되었는 바,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 법률간의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한국지역개발학회편, 1996).

또한 일부 지역개발법은 규제 일변도의 법인 반면에, 일부는 지나치게 완화일변도의 법으로서 법 적용상 적절성 등의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현행 지역개발 관련법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법 해석상의 모호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될 뿐만 아니라, 용어의 비표준화, 획일적인 행정제한, 관리부처의 다원화 등은 효율적인 지역개발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역개발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개개의 해당법에 근거를 둔 전국, 지역, 단지, 개별필지 계획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개발계획은 대체로 계획대상 구역의 범위가 넓을수록 상위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고, 범위가 좁을수록 하위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지역개발계획들은 지역개발 관련법의 변화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왔으나, 기존의 개발계획과 최근의 개발계획간의 한가지 명확한 차이점이 있다.

즉, 기존의 지역개발계획은 주로 중앙정부에 의한 하향적 계획으로서 그 과정이 비공개적이고, 그 대상에 있어 물리적 계획과 사회경제적 계획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에 반하여, 최근의 지역개발계획은 지역주민 중심적인 상향적 계획으로서 그 과정이 공개적이고 물리적 계획과 사회경제적 계획이 통합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개발계획이 지역중심적이고, 참여적·통합적 형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각 분야별 계획간의 역할분담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상호연계성이 미흡한 실정이고, 계획내용이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화되어 있어 계획내용의 전문화와 연계성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개발계획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안되지만 결정은 관계 중앙부처장의 권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환경변화에 적합한 지역관련 법체계의 정비와 함께 계획체계의 변화가 중요한 계획적 과제이다.

3) 지역개발전문인력의 활용기반 조성

지역개발학과 졸업생의 사회진출을 보면, 조사에 응한 7개 대학 총 졸업생 1,642명 중 공무원, 국영기업체 관련직종, 용역회사, 연구기관, 대학 등 직간접적으로 지역개발 관련분야에 취업된 졸업자는 전체의 11.4%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졸업생은 대학의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종에 취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병호 외, 1997). 이와 같이 대학의 교육이 사회진출과 직접적인 연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은 대학교육의 실효성 차원에서 국가적 손실일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 지역개발학과 자체 전공의 전문화 추구하고 함께 아울러 인접 관련학과와의 연계화를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역개발학과는 사회적 수요에 의해서 학과가 성립·발전하였기 때문에 학과명칭, 학위, 교과과정 등이 매우 상이할 뿐만 아니라, 학과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형성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지역개발전문인력 활용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개발학의 교육방향이 다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개발학을 전공한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있어서도 기존의 공공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민간부문 개발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과과정에 있어서도 기존의 이론교육 중심에서 실무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개발분야의 행정과 실무를 위해서는 지역개발 관련분야에서 교육받은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과 제도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최근에 지방행정고시의 과목편성 등에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V. 결 론

이상에서 우리는 지역개발학 분야의 도전과 전망을 학문적·교육적·사회적 이슈라는 세 가지 큰 틀 속에서 고찰해 보았다. 편의상 세 가지 범주로서 구분해 보았으나, 이들 3가지 이슈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지역개발의 발전적 패러다임은 이러한 연계시스템 속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각 장에서 논의된 주요 이슈와 과제를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적 이슈와 전망에서, 지역개발학의 학문적 전통은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지역과학에 연원하고 있으며, 학문적 성격은 지역(공간)문제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학제적이며, 규범적·실천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개발학의 학문적 지향성과 중심과제가 50~60년대의 효율성 지향, 70~80년대의 형평성 지향, 그리고 90년대의 생태성 지향으로 변화되어 온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처럼 지역개발학의 주요 패러다임은 시대적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지역개발학이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규범적·실천적 학문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여 왔는가라는 물음이 남는다. 장차 학문적 지향성에 있어서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생태성 지향의 갈등적 요소를 변증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개발 패러다임의 발견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교육적 이슈와 전망에서 주요 이슈는 지역개발분야 교육체제는 어떠해야 하는가, 지역개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역개발교육의 방향설정과 교과과정의 구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급변하는 대학교육환경 하에서 지역개발 교육체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로 집약될 수 있다. 지역개발학이 획일적 정체성보다는 지역적 특성과 시대적 특성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유연적인 교과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와 대학원 교육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부제의 시행을 비롯한 대학구조조정에 있어서는 명확한 교육목표의 정립과 교과과정의 편성·운영이 요구되며, 학부와 대학원(일반 및 전문), 그리고 관련 연구소 등의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도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사회적 이슈와 전망에서, 최근의 지역개발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즉 세계화·개방화와 지방화를 비롯하여 정보화, 첨단화, 친환경화 등이 급격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제 이들 변화를 간과하고는 지역개발을 논의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개발학의 영역 또한 이러한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부문에 있어서의 지역개발학의 역할과 이론적·실천적 대응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들 각 부문에 있어서 지역개발학의 역할과 이론정립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가 주요 논제로서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관련법 및 계획체계의 변화, 지역개발전문인력 활용기반 조성 등 계획적 과제를 어떻게 적절히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 또한 주요 논제일 것이다.

끝으로,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상의 세 가지 중심 이슈는 별개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적 이슈는 학문적 이슈와 사회적 이슈를 연계하는 가교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즉 사회적 이슈를 학문적 이슈로 발전적으로 수용하고 또는 학문적 이슈가 사회적 이슈를 선도하고, 이는 다시 교육적 이슈화되고 제도화됨으로써 사회발전을 이론적 실천적으로 이끌어갈 지역개발학 및 지역개발 역군이 탄생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병호·홍기용·이성근·정순오·조명래(1997), “대학 학부제도입에 따른 지역개발 관련분야의 계열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제10호, 한국도시행정학회, pp.275~309.
- 김광웅(1978), 사회과학연구방법론, 박영사.
- 김형국(1997), 한국공간구조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성근(1995), “지역개발학 분야 교육의 방향모색”, 한국지역개발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한국지역개발학회.
- 정환용(1995), “지역개발교육과 지역개발학의 발전방향”, 한국지역개발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한국지역개발학회.
- 조명래(1991), “지역정치경제학과 제3세대의 지역개발학”,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3권 제1호, 한국지역개발학회, pp.25~55.
- 조명래(1995), “지역개발학의 패러다임”,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7권 제2호, 한국지역개발학회, pp.51~67.
- 조명래(1996), “지역개발교육의 과제와 발전방향: 21세기 한국사회발전을 주도할 창조적 지역개발학도 양성을 위하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8권 제3호, 한국지역개발학회, pp.151~159.
- 최상철(1998), “지역계획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 지역계획론, 보성각, pp.3~19.

- 한국지역개발학회편(1996), 지역개발학원론, 법문사.
- 황명찬(1990), 지역개발론, 법문사.
- Drucker, F. Peter(1993), Post-Capitalist Society, Harper Collins; 이재규역(1993),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한국경제신문사.
- Hall, Peter(1979), "Models of Development Strategy: A Critique", Metropolitan Planning: Issues and Policie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